

HEADLINE NEWS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추진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는 올해 초 기존의 「공무원 윤리강령」 보다 강화된 새로운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 말 'Ethics Task Force'를 구성,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은 5명의 위원 중 1명만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종 조사권과 함께, 관련공무원 해임과 시거래업체 계약 파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둘째, 공무원은 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나, 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개인·단체들로부터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시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위원회 위원, 부서장 등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아울러, 강사료 및 각종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시장, 시의원, 지방판사, 기타 시의 간부급 직원들은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윤리담당관을 선임한다. 윤리담당관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위원회의 각종 조사 지원, 위반사례 관련 민원 핫라인 운영, 위반 사례 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www.ci.atlanta.ga.us/homepage/ethicalstandards.htm)

HIGHLIGHTS

도시환경

- ① 향후 30년을 목표로 한 도시환경개선계획 수립 (보스턴)
- ② 도시전역에서 봄맞이 「나무축제」 개최 (파리)
- ③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화 및 배출량증서 '거래시장' 조성 추진 (동경)
- ④ 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레드카드」로 경고 (프랑크푸르트)

도시교통

- ⑤ 보행자 전용 '밀레니엄 다리' 보강공사 후 재개통 (런던)
- ⑥ "통행료 부과가 궁극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이득" (뉴욕)
- ⑦ 보행자가 지나가면 바닥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로스앤젤레스)
- ⑧ 인공위성을 이용해 혼잡통행료 부과 (런던)
- ⑨ 운전자가 없는 無人 대중교통수단 등장 (영국 카디프시)
- ⑩ 강력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시행 (동경)

행정

- ⑪ 공공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부동산감정서' 공개 (오사카)
- ⑫ 상가 진흥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워싱턴 D.C.)
- ⑬ 주민이 직접 소포를 찾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배달체계 도입 (도르트문트 / 마인츠)

① 향후 30년을 목표로 한 도시환경개선계획 수립 (보스턴)

미국 보스턴市는 최근 장기 도시환경개선계획안인 「보스턴 400」을 발표했다. ‘도시건립 400주년’이 되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이 계획안은 가로, 보도, 공원, 자연요소, 학교, 공공건물, 상업지구, 역사문화지구 등 ‘공공영역(Public Realm)’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상호 연계함으로써 보스턴의 도시환경을 전면 쇄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市는 그 동안 400여 회의 주민모임을 개최, 보스턴이 지향해야 할 도시환경의 미래상에 대해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집약된 미래상은 각 동네별 특색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함과 동시에, 보스턴을 문화·교육·지역경제·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市는 이를 기초로 「보스턴 400」 계획안을 작성,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www.cityofboston.gov/bra/Project-Index.asp)

② 도시전역에서 봄맞이 「나무축제」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3월 12일~17일까지 「나무축제」를 개최했다. 市는 30여 곳에서 다양한 무료 행사를 열어 삼림유산의 풍부함과 벌목공·정원사·환경교육자의 열정 및 노하우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축제기간 동안 ‘나무축제 마을’을 노트르담 성당의 뒤쪽 광장에 설치해 市공원녹지과의 새로운 수목관련 사업을 홍보했다. 또한, 각 區에는 식재, 가지치기 등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설치했다.

베르시 공원에서는 공립 고등응용미술학교인 ‘불(Boullée)’의 목공예작품 전시와 함께, 그 작업과정이 소개되었다. 앙드레 씨트로앵 공원에서는 파리市의 초대형 항공사진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항공사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베르시 와인 저장소, 샹젤리제 정원, 뱅센느 공원, 불로뉴 공원 등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또한, 市는 축제기간 동안 2권의 소책자 및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 구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SITER/animations_jardins/fete_arbre/SOM_FETE_ARBRE.htm)

③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화 및 ‘배출량증서’ 거래시장 조성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지난 2월 20일 업무용빌딩 등 대규모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화와 배출삭감량을 증서화해 매매하는 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에는 이외에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태양열 발전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 의무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전력과소비형 가전제품 생산 및 사용 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都는 이 대책을 통해 민간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의무화하고,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량증서’를 매입토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都는 오는 4월부터 약 1,100개의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난화대책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都는 ‘배출량증서’를 매매할 수 있도록 3월중으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준비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都는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노력에 시장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풍력발전이나 산림 재생을 통한 삭감 효과를 제시하고 증명할 계획이다.

都에 따르면, 업무용빌딩이나 백화점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都 전체 배출량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 전체평균인 1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都환경국은 향후 이러한 지구온난화대책을 공론화해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NGO 및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都는 남아공에서 8월 하순 개막하는 세계환경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9월말까지 지구온난화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 21)

4] 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레드카드」로 경고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는 길가에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경찰관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는다(사진 참조). 이는, 市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이 제도를 사전에 알려주고 계도하기 위해서이다.

市는 오는 5월부터 길거리에 개똥을 방치하면 최고 150유로(EURO), 음식찌꺼기를 버리면 35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길거리 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표 참조). 市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었던 개똥의 양이 1,170톤에 달했다.

市는 2001년도에 철도운영업체와 함께 5천만 유로를 거리 청소에 투입했으며, 市환경질서부에 26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공공장소 및 거리를 청소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거리 청결’에 힘써왔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2. 14)

범칙금 대상	단위(유로貨)
바나나 껍질	20
깡통	20
휴지	20
음식찌꺼기	35
개똥	75~150
껌	35
재활용불가능 쓰레기	최소 150
담배꽂초	20



5 보행자 전용 ‘밀레니엄 다리’ 보강공사 후 재개통 (런던)

영국 런던市는 개통한 지 3일 만에 폐쇄했던 ‘밀레니엄 다리’에 대한 보강공사를 최근 끝내고, 곧 재개통할 예정이다(사진 참조). 市는 뉴 밀레니엄을 기념해 템스강(Thames R.)에 보행자 전용인 ‘밀레니엄 다리’를 건설, 2000년 6월 10일 개통했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리의 미세한 흔들림 때문에, 다리를 건너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통과 멀미 증세를 호소해와 다리를 폐쇄하고, 2년여에 걸쳐 보강공사를 했다. 市는 다리 구조물에 댐퍼(Damper;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 91개를 고정시켰으며, 대형 진동조정기도 설치했다. 그리고 2,000명이 동시에 다리를 건너는 테스트도 실시했다. (uk.news.yahoo.com)



6 “통행료 부과가 궁극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이득” (뉴욕)

미국 뉴욕市는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 개념 대신 가치통행료(Value Pricing) 개념을 사용해 맨해튼 동쪽 허드슨강에 있는 4개의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市는, 혼잡통행료가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동적 개념인 반면, 가치통행료는 운전자들 스스로 좀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적극적·능동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즉, 교량통행료를 징수하면 교통흐름이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와 운전자들은 시간과 기름을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징수한 통행료를 사용해 도로시설도 개선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통행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市는 교량의 한 차선을 고속화해 더 높은 통행료를 받는 대신, 다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이 넘으면 통행료를 환불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The New York Times, 2. 19)

7 보행자가 지나가면 바닥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스마트 횡단 보도’ 설치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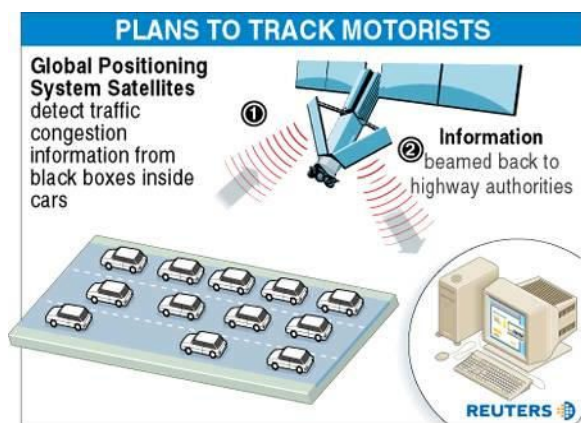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County)는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City Terrace 도로에 인접해 있는 2개의 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Smart Crosswalk)’를 설치했다. 카운티 교통당국은 이곳이 자동차 과속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 바닥과 철제표지판에서 레이저광선 같은 불빛이 번쩍거림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보행자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다. 카운티 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에 계속 설치할 계획이다. (Los Angeles Times, 2. 22)

8 인공위성을 이용해 혼잡통행료 부과 (런던)

런던시를 비롯한 영국의 대도시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관리 도로’로 지정된 혼잡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인공위성 감시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계획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합교통(Integrated Transport)’에서 제안한 것으로, 모든 차량은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수신기를 장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운용되면 스마트 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어, 차량 지체시간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 시스템이 교통혼잡 완화효과 외에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 2. 25)



9 운전자가 없는 無人 대중교통수단 등장 (영국: 카디프市)

영국 카디프(Cardiff)市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유선형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곧 등장할 예정이다. 'ULTRA(Urban Light Transport)'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교통수단은 브리스톨 대학의 아이디어를 '(주)첨단교통시스템'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2002년 2월에 도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ULTRA는 한 량(輛)에 4명씩 탑승할 수 있으며, 객차를 앞뒤로 연결하는 열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대속력은 시속 25마일이며, 건전지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까지 카디프 일대에 총 30대의 ULTRA가 운행될 예정이며, 성공적으로 운행될 경우 웨일스(Wales)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2. 24)

강력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시행 (동경)

일본 東京都는 경시청(警視廳)과 함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인 「원활한 東京 21」을 시행키로 했다. 「원활한 東京 21」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불법주정차 근절, 화물처리기반 확보, 교통 원활화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주정차 금지구간을 교차로 5m에서 약 30m로 연장하고 이를 붉은색으로 포장해 눈에 잘 띄게 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음성경고시스템을 정비한다. 둘째, 교통지도원을 배치해 불법주차를 순회지도하고, 고질적인 불법주차는 경찰에 통보한다. 셋째, 불법주차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넷째, 관할경찰서에 소형 순찰차와 주차단속지원요원을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화물처리를 위한 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번화가에 화물처리용 '주차미터'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 전환시간 및 구획선 조정을 통해 교통 원활화를 도모한다. 이 계획은 2월 20일부터 야스쿠니거리 오가와초 교차로를 시발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신주쿠, 시부야 등의 번화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2/02/20C2F100.HTM)

공공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부동산감정서’ 공개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최근 공공사업용 부지의 수용비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감정서’를 처음으로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市가 이번에 공개한 ‘부동산 감정서’는 1998년과 1999년에 민간기업으로부터 매입한 2곳의 공원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市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地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번 ‘부동산 감정서’ 공개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2. 14)

상가 진흥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는 기존상가 진흥, 새 상가 입점 유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750만 달러이며, 주요 시책은 상가 진흥과 마케팅 지원, 상점외관 개선, 행정지원 강화 등이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 업종별 단체, 주민, 상점주 등 관련집단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4가지 시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둘째, 모든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전문가 상담 등 직접 지원, 셋째, 상가를 매입하거나 재개발하려는 비영리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매입·신축 기금 운용, 넷째, 교육·워크숍·기술 지원 및 자원 조달 등 소규모 상점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www.washingtondc.gov/mayor/news/release.asp?id=295&mon=200201)

☞ 주민이 직접 소포를 찾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배달체계 도입 (도르트문트 / 마인츠)

독일우체국은 앞으로는 소포우편물을 고객의 집에까지 배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체국은 200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소포 배달시 10~15% 정도의 고객이 부재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소포를 찾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도르트문트(Dortmund)市와 마인츠(Mainz)市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통지하면, 해당 주민이 직접 소포를 찾아가도록 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현재,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소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동 소포인수정류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소포함에서 소포를 꺼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사진 1 참조). 또한, 일반 우체통과 같은 ‘자동 소포함’도 공공장소에 설치, 시민들이 언제든지 소포를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 소포함’ 이용료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한다(사진 2 참조). 도르트문트에 15개, 마인츠에 9개의 ‘자동 소포함’이 시범운영중이다. 새로운 소포배달체계는 배달비용 및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어,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www.deutsche-post.de) (Frankfurter Rundschau, 1. 22)



<사진 1>

<사진 2>